

人
스토리
스물두번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와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동달
김선화
김은숙
김희연
박창용
송혜숙
신들봉
신들봉
안민애
우정현
이재선
임숙정
정귀자
정호심
황오녀

원본 크기로 저장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그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정보가 놓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정보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린 이 / 김동달

한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들이고,
 한 사람의 마음에 의해 되고, 만들어 지는 것이다.

한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들이고,

한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들이고,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린 이 / 김선화

두 사람이
같이 웃고 있는 모습

같이 웃고 있는 모습

같이 웃고 있는 모습

같이 웃고 있는 모습

같이 웃고 있는 모습

같이 웃고 있는 모습

같이 웃고 있는 모습